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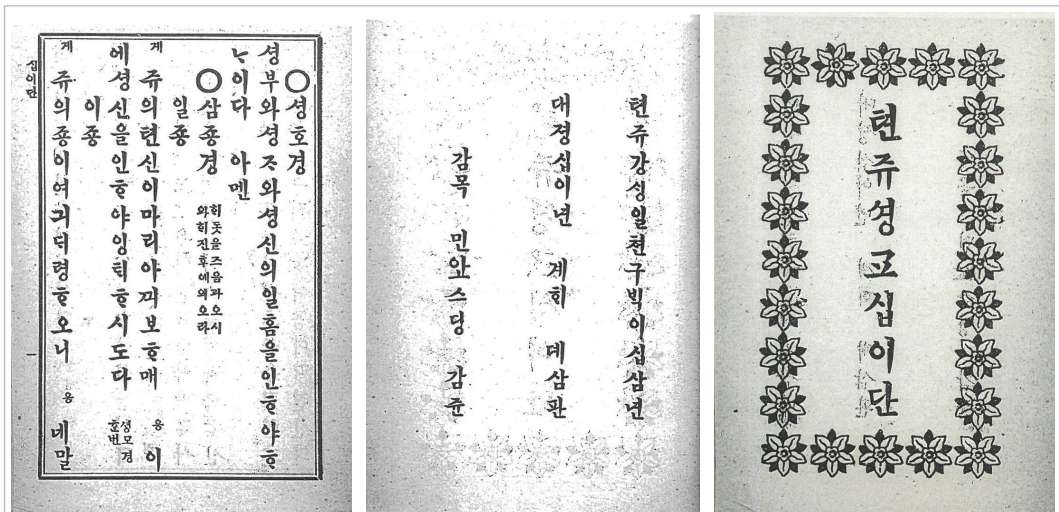
##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에 수록된 기도문 소개 (3)

- 예전 십이단 기도문, 『턴주성교공과』와 『턴주성교십이단』의 대조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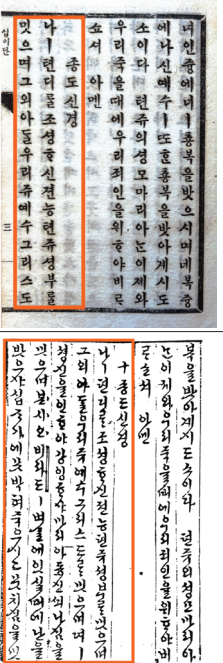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됩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지난 상교우서 3월호(118호)부터 7월호(122호)까지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서적에 나오는 ‘십이단’ 기도문은 1860년대부터 확인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의 ‘주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용어와 표현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기도문의 순서도 다르고, 기도문이 빠지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8월호부터 ‘십이단’에 수록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턴주성교공과』(1862년)와 『턴주성교십이단』(1886년)을 비교하면서 현재 기도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턴주성교십이단』 1923년 활판양장본 (우르바노 대학교 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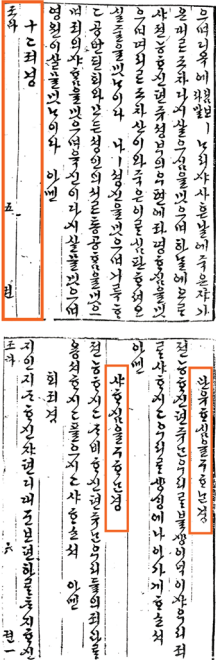
##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종도신경(종도신경)[현재 사도 신경]

턴주성교공과 (1862년) / 턴주성교십이단 (1886년)	'십이단'(위)과 '공과'(아래) '종도신경'
<p><b>종도신경</b>  나   턴디를 조성하신  전능 턴주 성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성신을 인하여 강잉하샤 마리아 동신끼 나심을 믿으며  본시오 빌라도   벼술에 잇술 때에 난을 밋으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못치심을 믿으며  디옥에[림보   라 말] 느리샤 사흔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조차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샤 전능하신 턴주성부의 우편에  좌명하심을 믿으며  더리로조차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노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회와  모든 성인의 서로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살을 믿으며  영원이 살을 밋노이다. 아멘</p>	 <p>*공과에는 제목 앞에 '十'(십이단) 표시가 있음</p>

### [현재 기도문] 사도 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예전 십이단 기도문 - 고죄경[현재 고백 기도]

턴주성교공과 (1862년) / 턴주성교십이단 (1886년)	턴주성교공과 1권 '고죄경'
<p><b>고죄경</b>          오주 전능하신 턴주와          평상 동정하신 성 마리아와          성 미가엘 대천신과 성 요안 세자와          종도 성 베드로 성 바로와          모든 성인성녀끼[신스압히는 성녀와 신부끼 하라] 고하느니          나   과연 생각과 말과 행함에 죄를 심히 만히 었었나이다.          내 툃시오[가슴을 치라] 내 툃시오[가슴을 치라] 내 큰 툃시오소이다          [가슴을 치라]          이러므로 평상 동정하신 성 마리아와          성 미가엘 대천신과 성 요안 세자와          종도 성 베드로 성 바로와          모든 성인성녀끼[우희와 궂치 하라]          나를 위하야 오주 턴주끼 전구하심을 비옵나이다.</p> <p><b>관유하심을 구하는 경</b>          전능하신 턴주는 우리를 불상이 녀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상상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p> <p><b>사하심을 구하는 경</b>          전능하시고 주비하신 턴주는          우리들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풀으시고 사하소서. 아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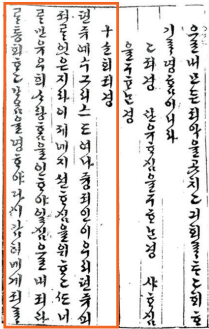
\* 『턴주성교공과』와 『턴주성교십이단』 모두 ‘고죄경’ 다음에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과 ‘사하심을 구하는 경’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공과’에서는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과 ‘사하심을 구하는 경’ 제목 앞에 ‘+’(십이단) 표시가 없습니다. 현재 기도문에서는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과 ‘사하심을 구하는 경’에 해당하는 기도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내용이 ‘고백 기도’ 말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백 기도’에는 예전에 나열되었던 천사와 성인 이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 [현재 기도문] 고백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가슴을 치며)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소회죄경(소회죄경)[현재 통회 기도]

현주성교공과 (1862년) / 현주성교십이단 (1886년)	현주성교공과 1권 '소회죄경'
<p>소회죄경 현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 중죄인이 우리 현주죄 죄를 잊은지라. 이제 네 지선하기를 위하고 또 너를 만유희 사랑함을 인하여 일심으로 내 죄과를 통회하고 마음을 명하여 다시 감히 네게 죄를 잊지 아니려 하니 브라건대 현주는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p>	 <p>*공과에는 제목 앞에 ‘+’(십이단) 표시가 있음</p>

\* ‘소회죄경’이 나오는 순서는 『현주성교공과』와 『현주성교십이단』이 서로 다릅니다. ‘십이단’에는 7번째에 나오지만, ‘공과’에서는 십자 표시 기도로는 9번째[삼종기도를 포함하면 10번째]에 나옵니다. ‘소회죄경’은 현재의 ‘통회 기도’에 해당하는데, 기도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여러 차례 기도문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현재 기도문] 통회 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7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